



바다의 실크로드
 김주영 저

그리고 우리의 미. 래.

바닷길에서 찾은 21세기 동아시아 연대의 가. 능. 성.

한때 여수는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땅과 바다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2010년 해양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 열병을 앓았었다. 비록 개최지는 중국 상하이로 결정됐고 그 당시 유치에 대한 열망은 이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린 듯하지만 대한민국의 해양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해양은 인류에게 서로의 문화를 전파하게 하고 또 풍요하게 만든 삶의 장으로서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상징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 철도가 완성되면 대한민국은 철의 실크로드와 바다의 실크로드를 연결하는 중추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21세기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 바다를 찾아서' 라는 부제를 단 《바다의 실크로드》는 이러한 희망과 기대의 연장선에 있다. 바닷길은 한국의 경주와 개경, 서경에서 시작한다. 중국의 항주, 광주, 신주항을 거쳐 베트남의 호이 안과 말라카 왕국을 통과하며, 후글리 지역과 인도의 마드라스, 콜롬보, 코친, 캘리컷, 고아, 다우 등을 거친다. 다시 페르시아 만 연안의 호르무즈와 바스라를 거쳐 홍해 연안의 아덴과 제다항을 거치면 알렉산드리아로 통하고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포르투갈에까지 바닷길로 이어진

다. 특히 이 책에서는 중국과 베트남, 말라카, 인도, 아랍,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의 바닷길의 중요 거점을 각각 한 장으로 정하고 이들 지역을 전공한 연구자들이 새롭게 글을 썼다.

이 책이 나오게 된 또 하나의 현실적 문제는 유럽연합(EU)과 북미 자유무역지대(NAFTA)와 같은 국가간의 경제적 상호의존 필요성이었다. 현재 인도,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이 중심이 된 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주도로 한·중·일 동북아 3국이 참여하는 지역협력구도(ASEAN+3)로 구체화된 상태다. 특히 1999년 12월 마닐라 정상회의는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필요성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국가의 협력에는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 바로 다양하고 광범위한 동아시아 지역의 정체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프롤로그를 쓴 배근찬 교수는 "정체성이 결여된 지역협력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에 기초한 국가간의 거래에 한정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지역공동체 형성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때문에 이들을 정서적으로 하나로 묶어줄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행히 《바다의 실크로드》 9명의 필자들은 동아시아 역사를 거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지역 국가들 공통의 정체성을 도출할 수 있는 지리적·역사적·문화적 근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외대 역사문제연구소 김상범 책임 연구원은 <중국, 해상 실크로드의 진원지>에서 이러한 인식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은 중국인들이 고안해 낸 조공무역과 책봉체제라고 말한다. 비록 중국이 주변부 민족들을 평화롭고 효율적으로 다스리려는 정치적 수단으로 고안해 낸 것이지만 중국의 당시대부터 청조까지 이어졌던 주변국들과의 공물 관계는 경제적·문

화적 관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 동아시아의 해양적 정체성을 창출해 내는 데 근간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말라카 왕국, 해상 실크로드의 동아시아 무역 거점>에서는 미국의 뉴욕 못지않은 국제도시로 말라카의 과거·현재·미래를 살핀다. 향료를 얻기 위해 동에서 찾아온 중국과 베트남, 서에서 찾아온 인도, 유럽 등 각국의 상인들로 붐볐던 말라카해협은 당시 플라유어라는 국제어를 사용할 정도로 번성했다. 특히 12월에서 4월까지 바람이 불지 않아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갈 수 없을 때는 이곳에 머물며 각각의 문화를 교류해 나갔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

우리의 역사인식의 틀은 너무나 좁다. 우리는 현재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그동안의 모든 것인 줄로 착각하고 산다. 기껏해야 조선시대를 거론하며 중국의 한 그늘로써 자괴감을 느끼는 정도다. 이 책 대표필자인 양승운 교수가 서문에 '개 짖는 소리와 닭 울음소리'를 상기시키는 것은 그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는 양차대전으로 폐허가 된 유럽의 거리에서부터 부각된 것일 뿐이다. 오히려 지금에 와서 산성 배설물을 흘리고 다니는 비둘기는 애물단지일 뿐이다. 동양에서 평화의 상징은 "들담에 앞발을 얹어 놓고 꼬리치며 짓어대는 멍멍이나 네 발가락을 곤두세우고 발개짓을 하며 '꼬끼오'를 연발하는 토종닭"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동서를 이은 사람들은 과연 누구이며 해상무역의 거점인 도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바닷길로의 동서문화 교류는 문명에 어떤 변화를 가져 왔으며, 오늘날 해양도시는 바다의 실크로드와 어떤 역사성을 맺고 있을까 등과 같은 의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새롭게 도출되는 질문은 그렇다면 과연 '21세기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왜 바닷길에서 찾아야 하는가' 혹은 '문명을 변화시킨 바다의 힘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다. 이는 바다의 실크로드를 단순히 지나간 역사로 읽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으로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책은 편집과정에서 무척 공을 들였다. 다분히 학문적인 의문에서 시작되기는 했지만 기행문으로 시작해 편하게 접근하게 하는 도입부와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지도 등 일반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을 제공하고 있다. **한글**

신동섭 기자